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익숙함과 변화



찬미예수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익숙한 그 무엇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생활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익숙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보면,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속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떠나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했던 사람과 잠시 떨어져서 지내보고, 익숙했던 장소를 잠시 옮겨보며, 익숙했던 생활에서 벗어나보면 비로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던 익숙함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매 순간 변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모험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우리 내면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삶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익숙함과 변화됨의 연속되는 삶이 아닐까요? 익숙함을 살다가 변화된 삶을 통해 한층 성숙해 집니다. 그러다가 곧 익숙함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익숙함을 벗어나 변화된 삶을 통해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일상생활을 해오던 익숙한 장소인 땅을 벗어나 전혀 경험이 없는 변화된 장소인 높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동안 경험해 왔던 제자들의 익숙함을 벗어나 버리고 그들에게 새로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 변화된 삶은 바로 하느님 체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동안 쉽게 느끼지 못했던 익숙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발 딛고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익숙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체험했던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익숙함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을 더욱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변화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익숙함과 변화는 우리 삶을 이루는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익숙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하루하루 겪게 되는 작고 소소한 삶의 조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를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성장시켜주는 새로운 체험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익숙함과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하느님 안에서 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남성동 본당 보좌 이승준 도미니코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신앙의 선조들을 택하시어 부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당신의 자애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께서 거룩히 변모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며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신앙의 힘으로 짊어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의 길을 함께 가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본기도

†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12장 1절-4절

안 내 : 아브람은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주시려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도전이 되는 일들이나 걱정스러운 그 모든 것들까지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 티모테오 2서 1장 8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하느님의 힘에 의거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대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하심 없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길을 가든 늘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의 은총을 더해 주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마태오 17장 1절-9절

강론 : ‘익숙함과 변화’(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었다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세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여러 직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내심 만족해 하며 신앙에 대해 자만심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서는 큰 시련이나 어려움도 함께 주시지요.

<침묵>

예수님께서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환하게 빛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을
주님 말씀에 힘을 얻을 때
주님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심이라 여겨집니다.

<침묵>

예상 할 수도 없었던 부르심에 응답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처럼
더 가벼운 마음과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희망으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72번 ‘다불 산의 예수’

※ 공소사목 성금

오경수님	50,000원	서만공소	100,000원
상주가르멜수녀원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0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림

■ 우곡성지 미사 안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일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일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 673-4152 FAX 054) 673-7094

■ 동해지구 구역반장 연수

- 일시 : 3월 12일(주일) 10:00 - 16:00
- 장소 : 영해 본당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공소 1일 교육

- 3월 15일(수) : 옥산 본당 청리공소
- 시간 : 14:00 - 18:00
- 주제 : '가정의 쇄신을 위하여'

■ 3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주일) 12:00 (태화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3월 19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1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안가대연 개강미사

- 일시 : 3월 18일(토)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3월 19일(주일) 13:00 - 16:00
- 장소 : 영해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3월 16일(목)까지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3월 18일(토)-19일(주일)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옥산본당 새 단장 성전 감사미사

- 일시 : 3월 19일(주일) 15:00
- 주례 :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2017 수취폐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3월 19일(주일) 19:30 용상동성당
- 4월 2일(주일) 19:30 영해성당
- 5월 14일(주일) 19:30 공검성당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3월 18일(토)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111. 바오로 성인의 사랑의 목록은 “모든 것을”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네 구절로 마무리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세의] 문화적 흐름에 맞서는 사랑의 역동성, 곧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112. 먼저, 바오로 성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준다.”(*panta stégei*)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악을 참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표현은 ‘허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다른 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침묵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단을 자제하고 완고하고 지나친 심판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루카 6.37). 비록 이것이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과는 상충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야고 4.11). 다른 이의 이미지를 끊임 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자기가 일으킨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와 시기를 표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방이 커다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비방이 다른 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하느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그

래서 하느님께서서는 혀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혀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는”(야고 3,6) 것이고 또한 혀는 “설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야고 3,8). 혀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야고 3,9)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원수의 명성까지도 존중하는 사려 깊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 요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3.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며 배우자의 약점이나 잘못이 아닌 좋은 점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들은 배우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자 침묵을 지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려는 피상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나 약점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잘못을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점들이 배우자의 본질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그러한 불편한 사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혼합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상대방의 사랑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않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거나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현세적이라고 하여도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그는 신적 존재의 역할을 할 수도 없으며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사랑받는 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청송에서 띄우는 봄 편지

박월수 아녜스
(안동가톨릭문인회)

독을 지나는 바람이 나긋합니다. 개울물 소리는 연인의 귀엣말처럼 감미롭게 들립니다. 물속에 잠긴 달풀도 이제 더는 발이 시리지 않아 보입니다.

겨우내 비어있던 개울가 빈집에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서울 아들로 가셨던 구순 어르신이 시골 봄별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밤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기억자로 굽은 허리를 하고 지난봄처럼 나물을 캐느라 창양들을 누비실 테지요.

나는 개울로 내려가 아이처럼 물수제비를 뜹니다. 점점이 번지는 동그라미를 세는 일이 재미납니다. 징검다리에 버티고 서서 꼼짝도 않던 점박이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초 사이를 노닐던 버들치 무리 때문인가 봅니다. 가만 들여다보니 맑은 물 아래엔 손톱만한 다슬기도 제법 누웠습니다.

개울 주변으로 가지치기가 끝난 사과나무가 단정하게 봄을 맞습니다. 고운 꽃눈 속엔 푸진 결실을 바라는 과수원지기의 소망을 속속들이 껴안았을 테지요. 나긋한 바람결에 사과나무 물오르는 소리 들립니다.

큰 길 쪽에 경운기가 지나갑니다. 동네 어르신 내외분이 앞뒤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읍내 푸른 미장원엘 다녀오시는지 까만 염색머리에 꼬불거리는 파마도 했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다방엘 들르셨겠지요. 삼거리 다방 짧은 치마 입은 레지를 얹혀놓고 쌍화차라도 한 잔 드셨을 게 분명합니다. 텅텅거리는 경운기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합니다.

독 위에 서서 개울을 내려다봅니다. 지난 밤 쏟아질 듯 퍼부어놓았던 별의 행방을 알 것도 같습니다. 낮별이 빠져 노는 개울은 눈이 부십니다. 찰방찰방 몸 행군 별은 하늘로 올라가 어제처럼 맑게 빛나겠지요.

청송 골짜기에 찾아든 봄은 이렇듯 곱고 향기롭게 번집니다.